

화산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제**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우러러 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쫓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점을 찍듯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鸛)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제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또 4, 5백보를 걸어 비로봉이 올랐다. 사방을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슬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A]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었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 홍인우, 「관동록」

*요령: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 **진혈덕**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느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짓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놉홀시고 망고덕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느다.
어와 너여이고 너 ㅁ트니 쫓 잇느가.

기심덕 고터 올라 등향성 브라보며,
만 이천 봉을 녀넉히 혀여히니,
봉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물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몸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여 인걸을 문돌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B] 비로봉 상양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놉듯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턴하 엇찌혀야 적당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히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헛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정철, 「관동별곡」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정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 안민영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가)~(다)를 바탕으로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였다. (가)~(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영랑제’에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그것들이 이루는 다양한 형상을 확인해 본다.
- ② ‘영랑제에서 절정까지’ 오르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양새를 확인해 본다.
- ③ ‘진혈덕’에서 ‘녀산’ 쪽을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경치를 즐겨 본다.
- ④ ‘기심덕’에서 ‘등향성’ 쪽으로 조망하며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형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기운을 느껴 본다.
- ⑤ ‘혈정루’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 본다.

[A],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를 사물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② [B]: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A]와 [B]: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A]와 [B]: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A]와 [B]: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다)를 <보기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 보기1 〉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 보기2 〉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눈 | 아 | 니 | 면 || 육 | 이 | 료 | 다 ||
 ①
 || 월 | 성 | 루 | || 읍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되 | 었 | 어 | 라 ||
 ② ③
 || 아 | 마 | 도 | || 서 | 부 | 진 | 화 | 부 | 득 | 은 || 금 | 강 | 안 | 가 || 하 | 노 | 라 | ||
 ④ ⑤
 * || || : 한 음보의 길이